

몬테소리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

Modern Significance of Montessori's Educational Thought

대구산업정보대학 보육교사교육원

황 윤 경*

Educational center for Nursery School teachers, Daegu Polytechnic College

Regular Professor Hwang, Yoon-Kyung

Abstract

I have studied on the modern significance of Montessori's Infant-education theory.

I clarify the fact that this study based on the background of Montessori's though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on her educational principle. The ideal background of her education was influenced by J. Rousseau, J. Pestalozzi, F. Froebel who were based on the respect for children and the naturalistic liber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dequacy of child education in modern society where double-income families were widespread and it's also meant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significance of a decent quality of life in modern society.

주요어(Key Words) : 몬테소리교육사상(Montessori's education theory), 교육원리(Educational principle), 현대적 의미(Modern Significance)

* 교신저자 : 황윤경(E-mail: nabibal@naver.com)

I. 서 론

1. 연구 의의

교육은 교육 그 자체보다는 항상 사회적 요인과 함께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와 결부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된다. 20세기 초반,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몬테소리 교육은 1907년 당시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설립된 로마의 빈민촌 산 로렌조(San Lorenzo) 어린이 집(Casadei Bambini)에서 몬테소리가 어린이들과의 경험을 소개한 <과학적 교육학의 방법론>이라는 책이 1909년 출판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유아교육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석남, 2006: 32).

한국에서의 몬테소리교육 운동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게 영향을 받아 비교적 역사가 짧은 편이다. 외국인과 한국인에 의해서 1960년 후반기에 도입되어 197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 이후 대단히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부의 유아교육 진흥사업 및 양적 확대의 정책지원이 실시되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탁아개념의 새마을유아원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종래에 중상류층 자녀들의 유아기 귀족교육처럼 여겨지던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는 전환기를 갖게 된다.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교육프로그램이나 방법 등에 대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고 아울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인지발달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삐아제(J. Piaget, 1896~1980)의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방법들이 활용되었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 환영받은 몬테소리 교육방법은 천주교 부설 유아교육기관을 선두로 하여 1990년대에는 유아교육의 대명사처럼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면서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지식중심의 유아교육 선호와 근간에 들어 “레지오 에밀리아” 등의 기타 교육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이제 몬테소리 교육 방법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되었고 그녀의 교육방법과 철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몬테소리가 1907년 로마 시로부터 위탁·운영하게 된 “산 로렌조 어린이집 개원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행사가 대구 효성가톨릭대학에서 열리기도 하여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의 의의를 새삼스럽게 조명하고자 하

는 까닭은 무엇인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여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가정교육을 대단히 중요시 하였다. 대가족 형태에서는 부모와 함께 노부모, 고모, 삼촌까지 모두가 영·유아들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는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화 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활동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사회 활동은 자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은 사실이나, 가부장제도에서 자녀양육을 일임했던 어머니의 역할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육’의 대안을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가정교육을 겸비한 바람직한 영·유아교육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제를 안고서 특별히 몬테소리 교육사상을 착안한 것은 그녀의 교육에 대한 첫 발상이 일반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안고 방치되어 살아가는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접근하였다는 점과, 또한 보통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어린이들과 달리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근무동안 마땅히 놀 장소가 없어 아파트 건축 현장의 구조물 사이에서 놀다가 어른들에게 발각되면 이리 저리 쫓겨 다니며 사회의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몬테소리는 결국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로마 시로 부터 위탁·운영하게 되고 정신지체아들을 위하여 연구·고안한 교구들을 일반 어린이들에게도 적용시키면서 교육의 과학적 적용을 실현시켜 나갔다. 특히 몬테소리 교육의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작업을 보면 영·유아들에게 유익한 가정교육의 방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몬테소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면서 발표한 어린이의 민감기, 정상화 과정 등의 교육원리는 어렸을 때부터의 발달과정에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들 속의 무한한 잠재력을 계발하여 누구나 세상을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그녀의 인도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몬테소리의 교육사상 중 유아교육원리의 특징을 고찰하고, 그로부터 맞벌이 가정이 정착된 현대 사회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연구 문제

첫째,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에서 ‘어린이로부터의 교육’이 전제하는 의미를 현대적 배경에서

규명한다.

둘째,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이 현대사회의 영·유아교육 환경에 시사하는 유익성과 한계성을 규명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근 발간된 몬테소리 관련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하나, 특히 주 저서라 할 수 있는 「몬테소리 과학적 교육학(Montessori Scientific Pedagogy)」, 「마리아 몬테소리 자서전(Maria Montessori Autobiography)」, 「몬테소리 생명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며, 선행연구 자료들은 몬테소리 교육이 시작되던 당시의 연구논문 다섯 편과 최근 연구논문 아홉 편을 통하여 분석하는 문헌 연구이다.

4. 연구의 한계점

몬테소리 유아교육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상을 다루지 못한 점과, 번역상의 문제로 몬테소리 원저를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운 한계점이다.

II. Montessori 교육사상의 배경

우리에게 이미 교육자로서 더욱 잘 알려진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과학자이고 의사이면서 동시에 여성운동가, 인도주의자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김남균, 1998). 말하자면 몬테소리는 사회운동가로서, 평화사절단으로서,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과정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장애어린이와 일반아를 위한 아동교육자로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닌 실천적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의 유아교육사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몬테소리의 교육이론이 성립할 수 있었던 성장기 부서의 배경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정적 배경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동쪽의 이름다운 도시인 안코나(Ancona)의 끼아라 발레(Chiaravalle)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행복한 유아기를 보냈다. 그녀의 부모는 독실한 Catholic 신앙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았고, 부유하였으나 몬테소리를 한없이 사랑한 어머니는 때로는 엄격하게 인내하고 절제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도적 교육을 하였다.

또한 딸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인 로마로 이사할 정도였으며, 따라서 몬테소리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예술, 문화를 흡수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몬테소리는 로마가 자기에게도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도시라고 회상하였다고 한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은 로마를 영원한 도시로 여겨 한번쯤 자기 생애에 가고 싶은 도시로 생각한다(조성자, 2006: 19).

몬테소리는 외갓집과의 인연이 깊었고 영향도 많이 받았다. 안토니오 스토포니(Antonio Stopani)는 몬테소리의 외삼촌으로서 밀라노 교구 주교인 동시에 밀라노 대학에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다. 한 성직자로서 뿐 아니라 한 자연과학자로서, 유능한 지질학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스토포니는 자연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시인이면서 여러 잡지를 창간하여 사회에 기여하였으며, 자연계의 정신세계와 종교를 연결하려고 노력한 학자였다. 조카인 몬테소리가 열여섯 살 되던 해에 스토포니 외삼촌은 여러 가지 저서를 출판하였다. 12년이 지난 다음 몬테소리는 외삼촌의 사상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인 실증주의 이론에 적용하기를 원했다(Socchera A., Maria Montessori una storia per il nostro tempo, 23, 재인용). 이후 그녀가 생물학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가계의 영향임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몬테소리는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서 조숙한 어린이가 아니었으나 어려서부터 모든 면에서 리더십이 뛰어났다.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도 그녀는 항상 리더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성이 발달하여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었다. 친구들도 몬테소리를 아주 좋아했다고 전한다(조성자, 2006: 25).

2. 학문적 성숙기

수학과 함께 생물학에도 깊은 흥미를 느낀 몬테소리에게 과학적 관심이 싹트면서 여성으로서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몬테소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의과대학에 이탈리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입학하여 학문적으로 새로운 개척을 시도한 것은 1890년의 일이다. 그 시대에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의사 시험을 응시한다거나 인체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선 획기적인 일이었다(홍건매, 1990).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장이며 외과 전공인 바젤리 교수는 그녀의 입학 허가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몬테소리는 끝까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굽히지 않으며 드디어 입학 승인 허가를 받아내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많은 조소와 모욕적 언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밤늦도록 해부학 교실에 혼자 남아서 시체와 씨름을 하며 땀을 흘리며 걸었다. 의학부 마지막 해 1896년 손으로 직접 쓴 96쪽에 달하는 졸업논문은 정신 신경질환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터이기에 ‘피해망상연구에 관한 임상학적 기여(II contributo clinico dello studio delle allucinazioni a contenuto antagonistico)’라는 제목의 논문이었고, 7월 10일 26세의 젊은 나이에 마침내 최대의 박수갈채를 받는 졸업 논문의 공개 강의를 마침으로써 몬테소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 졸업했다.

몬테소리는 1897년부터 전문의 직위로 제의가 들어와 로마 대학 부속병원 정신외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병원 한 쪽에 아무런 장난감도 없이 방치되어 수용되어 있는 정신지체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식사로 던져주는 빵을 먹기 보다는 그것을 갖고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며 조작하고 있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이것을 목격한 몬테소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의학적 처치보다는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연구소를 사임하고 다시 로마대학 철학과에 입학한다. 그녀는 외삼촌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 곳에서 당대의 시대사상을 특징짓던 교육과 인간에 대한 낭만주의,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과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영향과 함께 J. Rousseau(1712~1778)와 J. Pestalozzi(1746~1827) 그리고 F. Froebel(1782~1852) 등의 아동중심주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며 영향도 받게 된다(김경숙, 1983).

또한 몬테소리는 자연과학인 의학 전공과 심리학적 교육학의 이론을 연구한 후 평생 정신지체아 교육에 일생을 헌신한 프랑스의 의사 J. Itard(1774~1838)와 E. Seguin(1812~1880)의 생리학에 심취하여 연구와 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이 주장했던 생각, 즉 정신지체아들을 위해 활용되었던 생리학적 방법은 일반 아동을 위한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되어야 함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홍순정, 1992: 129). 생리학적 방법으로 실천한 아베롱 숲 야생소년 Victor의 교육과 세가의 백치교육은 정신지체아 교육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접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이타르와 세강이 최초로 정신지체아 교육에 적용한 심리학적 방법은 몬테소리 교육방법을 형성시킨 기저가 된다. 결국 지금까지 몬테소리가 몰두했던 의학, 교육학, 심리학, 인류학 등의 모든 학문은 특수교육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학문적으로 영향을 주었다(조성자, 2006: 69).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몬테소리 유아교육 사상은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적인 배경과, 이탈리아 최초 여의사로서의 의학과 생리학을 중시한 과학에의 관심과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서 사상적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인본주의 사상과 사회정의 그리고 자유 개념이 그녀의 교육철학의 핵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모든 철학적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관찰한 모든 사실들에 근거한다. 그래서 1896년에서 1907년 사이를 몬테소리의 학문적인 준비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Pignatari M., Maria Montessori: cittadina del mondo, 14, 재인용).

III. Montessori 교육사상의 본질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로서 의학의 배경을 가지고 교육의 발달에 공헌하게 되는 몬테소리의 교육사상은 루소, 페스탈로치, 프리벨 등의 자연주의 교육철학자들의 사상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이상금, 지경애, 1996: 80). 또한 몬테소리가 생존하였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시대의 사조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변적, 수사학적 성격의 관념론과 낭만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인간의 오성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의 양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몬테소리의 성장과정 시기와 학문적 배경을 살펴 볼 때 외삼촌 스토파니의 실증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실증주의의 흐름을 접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몬테소리는 자기 이전의 교육학은 형이상학적 심리학의 영향으로 사변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철학적 교육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종래의 교육학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교육학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과학적 교육학(scientific pedagogy)”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유혜령, 윤복주, 1996).

1. 신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은 마치 별들이 질서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돌면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은 그들의 궤도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아동의 발달과 인간의 잠재능력의 발휘를 신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이해했고 아동 관찰을 통해 인간 속에서 신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였다(박두하, 1976). 그녀의 교육사상 절반을 통하여 일관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는 생물체의 존재 목적이 살아남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 속에서의 자기 창조에 있다고 했으며, 따라서 그녀는 교육의 본질을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우주의 법칙을 지각하는 것에 두었다(전영순, 1980: 28).

2. 인간

몬테소리가 보는 인간은 신을 경외하는,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발전과 내면에 깊이 존재하는 창조적 발전의 힘을 가진 존재이다. 즉 그녀가 자신의 관찰과 연구, 경험을 통하여 도출해 낸 것은 바로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몬테소리에게 있어 인간은 “완전한 정상화의 모형”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닌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며, 또한 내적 능동성을 가진 창조적 존재이다. 이것은 몬테소리 교육이 전인 교육으로 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때 몬테소리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육체의 지주로서의 생물학적인 인간관이고 무한한 잠재적 에너지를 소유한 내적 능동성을 가진 지적·창조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황윤경, 2006).

3. 자연

몬테소리의 자연은 루소, 페스탈로치의 주관적 자연주의 사상과 베이컨, 코메니우스와 같은 객관적 자연주의 사상이 통합된 자연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루소, 페스탈로치로 이어지는 사상적 배경과 자신의 자연과학적 입장이 통합되어 몬테소리 자연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적인 사상과 실증주의적 철학의 조화는 몬테소리 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페스탈로치나 프뢰벨 그리고 몬테소리는 다 같이 자연에서 인간의 감각이 발달하고 인간의

감각에서 지성, 윤리성으로 지향해 간다. 그러나 몬테소리가 보다 더 정확한 대상을 지향하는 객관성, 실증성을 갖는 자연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페스탈로치는 자연을 하위자연과 상위자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몬테소리의 자연관은 그러한 등위적 자연관은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프뢰벨처럼 신비적이고 낭만적인 자연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몬테소리의 자연관은 자연법칙을 교육과 인간발달에 적용하는 자연이치의 존중이며 자연의 순서, 자연의 조화를 교육과 인간발달에 일치시키려는 자연과 인간의 동일시가 발견된다(김경숙, 1983).

따라서 루소, 페스탈로치, 프뢰벨이 주장하는 각 단계의 발달에 충실한 교육을 구체적인 교육장면을 통하여 구현하고 타당성을 증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몬테소리이다. 그러나 몬테소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루소의 주장에 대하여 야만인으로부터 교육의 모형을 얻어낼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신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는 교육을 자연스러움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즉 교육의 자연스러움과 자연 자체에 교육을 맡기는 것을 확실히 구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녀가 교육에서 아동 자신의 자발적인 동기를 강조한 부분과 연결이 된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어린이는 논리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인 자연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서 어린이가 가야하는 길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몬테소리의 자연관은 인간발달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본질적 핵심으로서 그녀의 교육사상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교육사상 전반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황윤경, 2006). “유아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자연이다.”라고 말한 그녀는 자연은 자유와 독립을 주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생명 그 자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아에게는 자연과의 접촉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연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그가 유아인 경우 신체와 정신의 발달에 필요한 힘을 그 자연으로부터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몬테소리는 역설한다(김숙이, 2002).

4. 우주관

1935년 몬테소리는 런던 국제 몬테소리 교사훈련과정에서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라는 강연을 하였고, 1945년 인도에서는 “우주교육”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신이 인간에게 인지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이 인지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우주적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몬테소리는 국가와 정당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가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해 우주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과 갈등의 원인은 인간이 창조 질서에 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문화가 희생될 위협에 처하게 만들었다. 몬테소리는 이것을 환경 문제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문제, 즉 평화 교육으로 확장시켰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서 평화를 이루는 단일 국가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물들의 우주적 사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우주적 의식”이라고 하며 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이 이러한 면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주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연령이다.

교육적인 면에서 우주교육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첫째, 사물교육이다. 물리적 사물과 생태계의 인식을 위해서 모든 교육은 세계에 대한 상황과 현상을 인식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전체교육이다. 우주교육은 어린이에게 창조물에 대한 우주적 관점을 알게 하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킨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방향감과 시간감각으로서의 우주교육, 즉 시·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우주질서와 운동을 포함한다.

셋째, 윤리적 사명으로서의 우주교육이다. 우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책임을 지는 인류애와 세계의 평화를 필요로 하고 인식하는 우주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를 어린이들의 완전한 환경으로 보는 몬테소리의 우주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기초가 된다. 우주교육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무 생명체에 관한 모든 존재들이 나와 모든 것과의 관계, 모든 생명체의 결합, 자연에서의 상호작용, 우주의 진화와 삶의 열쇠 과정, 우주에서 인간의 사명감, 모든 유기체의 우주적 사명감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Michael and D'Neil Duffy, 22, 재인용).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무 생명체는 각 우주적 위치에서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전체성 속에 조화로움을 유지한다. 우주 속에서 각자 자기 위치를 발견하고 우주적 사명감에 동참하는 것이다. 몬테소리는 어린이가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자연의 리듬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전체성의 요구에 의해서 인격이 조화롭게 성숙하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인간의 조화와 전체성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고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역시 교육적인 힘으로 보았다(김남균, 1998).

우선적으로 우주교육은 나와 전 인류와의 관계성, 우주적 통합, 생태학적 관점, 공존과 의미로서 전-관계의 의미를 포함한다.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경외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고, 우주 특히 태양계의 구성요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에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지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아동들의 물건을 만드는 공작활동, 걷고 던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뛰어 다니

는 운동을 장려한 몬테소리는 교실 상황의 소란스러움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소란스러운 활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실은 아동들의 교육활동이며, 그 자유스러운 활동은 자체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기 마련이라고 했다(장상호, 2006: 392-393). 이것은 그녀의 신앙관에서 나타나는 카오스의 세계, 즉 천지창조 시의 혼돈상태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오히려 질서 속의 혼돈을 전제하는 우주관의 맥락이라 하겠다. 어린이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교육 안에는 성인들도 흉내 낼 수 없는 그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고 지구를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도록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지구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식물과 동물이라는 생명체의 공동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사상에서 나타나는 우주관이라 하겠다. 결국 신이 인간에게 준 지능을 사용하여 자연을 가꾸고 문화와 문명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IV.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의 본질

몬테소리는 어린이의 사고 및 행동을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고 및 행동에 관한 일반적 법칙 및 원리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몬테소리 유아교육의 목적과 교육원리의 중심사상인 어린이 존중, 민감기, 흡수 정신, 정상화, 준비된 환경 그리고 자동교육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교육 목적과 정상화 개념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정상화(normalization)시켜 주는 데 있다(조방제, 1989). 흔히 정상화란 비정상아를 정상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잘못 혼동하여 사용하기 쉽다. 그러나 몬테소리가 의미하는 정상화는 '새로운 아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동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즉 정상화란 유아가 발달과업의 완수를 위해 작업(work)에 집중(concentration)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황옥자, 1984).

몬테소리의 정상화 개념(II concetto della normalizzazione)은 인격 형성과 발달에 관계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은 언제부터 형성되는가,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지던 몬테소리는 결국 로마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철학과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다.

어린이는 정신을 통하여 주위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성격과 인격을 스스로 형성해 나간다. 인격이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다. 몬테소리 교육사상에서 어린이를 한 인간, 전인적 인격체로 보는 관점은 분명하다. 인격은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해 놓은 현재의 자기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인격이 날로 발달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자유로운 존재, 독립된 존재, 자율적 존재로 정상화·사회화되어 간다.

몬테소리의 정상화란, 어린이의 발달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을 배제해 주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정상적으로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잠재력을 방해하고 발달 욕구를 저해하는 것은 정상화로 가는 사회적 태아기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다. **정상화된 어린이란** 독립적으로 자기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자기의 관심과 계발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 어린이를 일컫는다(조성자, 2006: 212).

그러므로 정상화란 이미 교육되어 자기가 정확하게 행동하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본성과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조건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으로 발달 가능성을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환경을 준비하고 교육조건을 개선하여 발달 법칙에 따라서 정상화되어 가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들의 임무라고 말한다.

자연이 자연의 법칙을 순조롭게 따를 때 조화롭고 건강한 자연을 만들어 내듯이 인간도 자신의 내적 형성의 법칙에 따를 때 정상적인 발달을 한다. 정상화된 어린이들은 질서, 작업, 집중력, 현실성, 자기 일, 독립심과 자율성,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몬테소리는 말한다(윤은주, 2003).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 삶의 기쁨을 느끼고 항상 즐겁고 행복해 한다. 어린이가 정상화 되어가는 것이다(황옥자, 1984).

정상화된 어린이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화된 어린이는 작업에 집중적인 지속성을 나타내는 자발적인 집중력이 있다.

둘째, 정상화된 어린이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작업을 사랑한다.

셋째, 정상화된 어린이는 질서를 사랑한다. 어린이는 자기 주변의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 의식한 외부 현실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일견 고착화(fixation)라고 보기도 한다.

넷째, 창조적인 능력을 실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의 정신은 환경을 사랑한다.

다섯째, 침묵과 개별 작업을 좋아한다. 이러한 능력은 ‘자발적인 집중력’의 개연성을 높여주고 이것을 통하여 어린이들 간에 ‘도덕적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소유본능을 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정상화된 어린이는 물리적 환경을 사랑하지만, 사물을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과 창조정신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곱째, 순종한다. 외적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상호의존적으로 의지를 발휘하여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덟째, 정상화된 어린이는 독립성과 주도성을 갖게 된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습득하고 주위환경에서 경험의 기회와 자유가 주어질 때 얻게 된다.

아홉째, 어린이에게 상부상조하는 능력이 있다. 정상화된 어린이는 시기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질서와 자발성을 보장하여 자발적인 자기 단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상화된 어린이는 영혼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 기쁨은 집중을 한 후 작업의 결과에 대한 만족감에서 나온다.

크게 보면 이들의 특징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즐거움, 또는 사회적으로는 자발적인 자기통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몰입의 즐거움은 “우리의 능력을 바로 사용할 때면 반드시 찾아오는”, “몸가짐 전반에 흐르는”, “신비한 정서” 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가 공연 등을 관람함으로써 얻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더욱이 이는 협동, 순종과 같은 자기통제의 도덕적 태도를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 즉 작업에 대한 몰입은 정상화의 도달점일 뿐 아니라(황옥자, 1984),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상화’의 상대어인 ‘비정상’에 대하여 몬테소리는 ‘심리적 이탈 현상’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은 이탈된 어린이를 정상화시키는데 있다. 즉 특수아 교육과 빈민아 교육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심리적 이탈현상은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내적 에너지의 강·약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이것은 어린이의 주의집중이 작업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쏠리는 현상으로서 몬테소리는 ‘정상으로부터의 이탈(devi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이탈 모습과 활동에 대한 몰입을 회복한 정상화된 모습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가리키기 위해 몬테소리는 정상화를 개종(conversion)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아이”의 출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윤은주, 2003).

비정상으로서의 활동으로부터 이탈이 보여주는 징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방황, 변덕, 무질서 등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허비

둘째, 의존성, 나태, 열등콤플렉스 등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위축

셋째, 소유에 대한 집착, 어른을 부리려는 권력지향 등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왜곡 등이다.

몬테소리는 일탈현상으로서의 소유욕의 병폐를 직시하여 “모든 도덕적 왜곡은 사랑(작업에 대한 몰입)과 소유 중 어느 쪽으로 첫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소유욕과 같은 일탈상태를 벗어나 작업에의 몰입을 회복한 상태가 바로 정상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탈현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의기저하, 열등감, 굴종, 외적 보상에 대한 지나친 의존, 소유욕, 지배욕, 공상, 몽상, 공격성, 게으름 등이 있다. 이는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통합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므로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몬테소리는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어린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며, 어린이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도달하는 정신적 완성의 새로운 상태가 그들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상화’는 준비된 환경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교구를 선택하고 스스로 조작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어린이가 교구의 활동에 만족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린이는 점차 자아존중감이 생기게 되어 활동을 통해 본래 의도한 목적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곧 아동의 인성 및 태도, 교육의 효과도 기하는 전인교육을 일컫는 것으로 몬테소리 교육의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몬테소리는 어린이가 자신의 자연적인 생명력의 객관적인 특성을 외부의 억압 없이 그대로 발휘하는 상태를 ‘정상화’라고 하였고, 이러한 정상화에 도달한 어린이를 ‘정상화된 어린이’라고 하였다(유혜령, 윤복주, 1996).

아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열쇠는 어린이에게 질서 있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아의 정신을 어떤 대상을 통하여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몬테소리 교육원리를 어린이 존중, 민감기, 흡수정신, 준비된 환경, 자기수정의 원리로 나누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교육원리의 특수성

1) 어린이 존중(child respect)

어린이에 대한 존중은 몬테소리 교육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다. 몬테소리의 교육학은 인간 생명이라는 개념과 인간 존중사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녀의 아동관은 인간 존중사상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잠재능력과 자기 발전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는

우주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몬테소리는 어린이가 자기 자신 속에 실제적으로 운동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몬테소리 당시의 전통적인 관념은 어린이를 수동적 존재, 외부에서 채워주어야 할 빈 그릇으로 생각했으며, 도덕적 순종을 강요하고 비도덕적 태도를 억압적으로 금지시켰다. 성인은 마치 어린이의 창조자와도 같은 존재였고, 어린이를 정신적 존재로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었다. 교육적 관계에서 볼 때, 어린이는 교육과 수업의 대상일 뿐이고 교사의 지도에 의해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교사는 어린이의 주인이며 이미 습득한 지식을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어린이는 이를 수용하는 사람이다. 어린이는 어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며 교사는 끊임없이 감시, 경고하고 명령하게 된다.

몬테소리는 이러한 지식 위주의 기계주의적인 교육, 일방적인 교육적 관계, 억압적인 교육 분위기, 어린이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교육 등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실천하고자 했다. 사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배우도록 강요하면 결국 배움 자체에 대한 혐오감만 생긴다. 몬테소리의 교육학은 인간 생명이라는 개념과 인간 존중사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녀의 아동관은 인간 존중사상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잠재 능력과 자기 발전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는 우주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사와 아동, 어른과 아동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이다.

에밀의 교육을 논하면서 루소는 어린이들이 그들 각각의 수준에 맞는 교육의 소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의 기술은 학생을 즐겁게 배우도록 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의 특징은 과실을 범하는데 있으며, 그 과실을 통하여 아동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면 루소의 예측대로 어린이들은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인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학습은 어린이가 주변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감각과 관계된다. 처음에는 의식 이전 과정으로서 흡수정신을 통하여 주변세계에 적응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흡수정신 대신 수집된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한다. 학습은 관심의 집중화, 즉 하나의 사물에 최고의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관심의 집중화를 경험하면서 어린이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인격을 발달시켜 나간다(정상화개념). 그 결과 어린이들은 자기 결정력과 행위능력이 있는 자유로운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 학습은 습득되는 것이다.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며 교사는 이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자극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내재된 창조력을 인정하는 몬테소리의 아동관은 어린이가 성인에 의해 그들의 내재적인 힘이

억압되는 것을 부정하며, 쉽게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린이와 어른은 한 인간이면서도 전혀 다른 존재방식이나 정신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라는 한 인격체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에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여 가는 존재이며, 어른이라는 인격체는 이미 일정한 종류의 기준에 도달한 인간이라는 존재이다. 어린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발달과정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이며, 정서적·지적·신체적으로 고루 키워져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서석남, 2006: 16). 몬테소리는 유아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육실천에 토대가 되는 것은 어린이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며, 교사중심의 교육이 아닌 어린이의 잠재능력의 발골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존중사상이라고 강조한다(심은혜, 2001).

2) 민감기(Sensitive period)

민감기라는 용어는 네델란드의 Hugo De Vries가 동물의 발달에 관하여 연구하는 유충성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몬테소리가 주장하는 민감기의 개념은 Hugo De Vries가 사용한 것을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적용시켜 사용한 것이다.

민감기란 모든 생물이 유소기에 그 생물에게 고유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환경 중의 특정한 요소에 대하여 특별히 예민한 감수성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것으로서, 민감기를 정의할 때는 다음 3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는 바, 첫째, 환경 중의 특정한 요소에 열중하는 것. 둘째, 특별히 민감한 감수성. 셋째, 어느 일정한 기간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에 나타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그 후에는 다른 새로운 민감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박정희, 1988).

유아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민감한 상태는 지적 흡수력이 왕성한 어린이가 그의 환경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의 특성에만 열중하며, 이 시기에 어떤 행동을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반복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이 폭발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몬테소리의 관점에 의하면 어린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질서, 감각, 그리고 언어에 대한 민감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은 사물에 대한 민감기는 3세 때 가장 왕성하고 예의범절에 관한 민감기는 5,5세~6세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시사하고 있다(심은혜, 2001).

민감기는 어린이의 정신적 성숙을 촉진시키는 발달 단계의 하나로서 몬테소리는 생태학적으로 영, 유아기 때 나타나는 민감기를 학습에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강조하였다(전영순, 1980: 37). 영, 유아는 이 시기에 세계와 접촉하고 싶은 강한 욕망으로 특별한 내적 생명력과 기쁨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러한 접촉을 강요하는 그의 환경에 대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지적·정신적 욕망이다. 만일 이 민감기에 그 흥미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자연적 이성의 획득은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김영옥, 1981). 그러므로 교사는 이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만족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감기 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어린이의 준비된 환경을 통하여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몬테소리의 주된 원리 중 하나이다.

3) 흡수정신(Absorbent mind)

성인이 지성에 의해 지식을 흡수한다면 어린이는 전체의 정신생활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인상은 어린이의 마음에 침투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형성하며 그것이 구체화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출생에서 3세 가량 되는 사이에 흡수정신이라는 특수한 정신형태로 나타난다(김영옥, 1981). 어린이의 학습은 성인에 의해 배우기보다는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어린이 자신이 스스로의 환경과 경험에서 배운다고 믿는 몬테소리는, 어린이는 그의 정신으로부터 지식을 흡수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다. 또 아동의 정신을 자기 둘레의 환경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동화하는 커다란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흡수정신’이라고 불렀다. 이는 어린이가 그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흡수하는 정신 능력을 통하여 환경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경험하여 배우게 되는 어린이의 특성을 말한다(전경화, 1993). 즉 흡수정신이란 어린이에게 보여지는 모든 이미지를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많은 정보를 빨아들이고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흡수정신은 매우 강한 내적인 감수성으로 외부에서 오는 인상을 다만 기다렸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며, 인상은 단순히 어린이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의 마음속에서 구현된다. 이와 같이 민감기와 흡수정신은 어린이의 내적 성장 욕구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내적 성장 욕구와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이 어린이의 발달은 가능하다.”고 몬테소리는 주장한다(서석남, 2006: 21). 따라서 몬테소리의 영, 유아교육은 학습 환경이 주어지면 어린이는 자신의 내적인 성장 지향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계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지니고 있는 민감기와 흡수정신을 인식하고 내적 성장 욕구와 생명력을 활용하고 어린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를 잘 파악하여 특별히 준비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흡수정신이라는 어린이 특유의 이 놀라운 정신능력은 출생에서 6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몬테소리는 0~6세까지의 영, 유아기를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4) 준비된 환경(prepared environment)

몬테소리 교육의 상징이 되는 것은 준비된 환경이다. 준비된 환경이란 정신적인 태아인 어린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양식이 되는 지적인 자극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심은혜, 2001). 즉 어린이가 6세쯤 되기까지는 성인이 갖는 환경의 크기나 템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므로 언제나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성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본래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어린이가 자기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려고 스스로 자기를 타이르고 단련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 힘을 의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어린이는 성인들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어린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6세까지의 민감기나 흡수정신을 잘 이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것을 준비된 환경이라고 하였다.

몬테소리에 의하면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발달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정상적인 발달과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어린이의 신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심리적인 성장을 위한 작업 또는 그 자신의 성장 법칙에 따라 환경으로부터 발달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몬테소리의 환경이란 “유아에게 자양분을 주는 것이며, 자기구성(self construction)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유아의 성장 형태와 인격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몬테소리는 유아에게 준비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준비된 환경이란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유아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곳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준비된 환경 안에는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유가 있고, 어린이는 자유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경험이 형성되고 목적을 가진 작업에 의해 자신의 잠재력이 계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몬테소리의 준비된 환경은 자유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박정희, 1988).

따라서 어린이집은 훌륭하게 준비된 환경의 본보기이며 유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흡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돌보았던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준비된 환경을 그녀는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몬테소리의 준비된 환경은 교육환경의 시설, 설비, 교재, 교구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신, 동료, 부모, 교사 등의 인적 환경의 범주가 포함되는 현대적 교육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전경화, 1993).

5) 자동교육(Auto-education)

몬테소리 교육방법의 핵심은 어린이의 자연적 충동에 의한 자유 활동의 개념에 입각하여 어린이가 준비된 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교구를 선택하도록 자유가 주어지며, 비지시적인 학습 환경으로 안내되고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이 정리되어 자신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개발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원리는 어린이 스스로 일어나는 내적인 성장 욕구를 존중하기 위해 어린이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어린이의 자발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장애를 제거한 “준비된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생리적·심리적 발달을 조성함으로써 심신의 자기 발달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어린이의 정신적·신체적·감각적 발달과 자발적 자동교육, 자기 확대, 자기신장, 자기발전을 유아교육의 목표로 삼은 몬테소리의 자동교육은 인간의 잠재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아동은 능동적으로 준비된 환경에 참여하여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고 자유, 활동, 자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기활동을 실현하면서 점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게 됨으로써 자기완성, 자기실현의 기초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심은혜, 2001).

어린이는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장을 지향하는 생명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준비된 환경에서 교구를 선택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자기 교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집중하고 만족하게 되어 비로소 ‘정상화’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한 몬테소리는 성장을 향하여 적극적 생명을 가지고 어린이는 자기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교육은 자기 발전의 이러한 힘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자신만의 교육 원리로 삼았다(윤은주, 2003).

따라서 몬테소리의 자동교육의 개념은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를 교정하게 하는 “실수의 통제(control of error)”에 기초를 둔 아동 스스로 선택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흥미로운 작업을 통한 스스로의 교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의 자연적 경향성을 존중하는 활동이라 하겠다.

V.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의 가치와 현대적 의의

이상 몬테소리의 교육사상 가운데 영·유아교육론의 특수성을 간략히 살펴 본 결과, 본 장에서는 그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현대 사회의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전제로 한 영·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몬테소리 교육사상을 통하여 접근한 것은, 이 시대의 일탈된 영·유아교육환경을 그녀의 영·유아교육사상에서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몬테소리 영·유아교육사상에서 제시한 교육원리를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이 시대에 시사하는 유의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로부터의 교육”이 전제하는 의미의 현대적 관점

몬테소리는 유아의 자연성에 기초한 교육, 생명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교육, 교육에 있어서의 유아 존중과 자유의 부요, 노작, 직관, 감각경험을 중시하면서 그녀만의 독특한 교육사상을 확립하였다(신화식, 1989). 어린이들은 영아기에 뒤집고, 기고, 앉고, 서는 이동능력을 발달시키 나간다. 완전히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게 되었을 때, 어린이의 손의 사용은 곧 두뇌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손은 곧 정신이라고 몬테소리는 말한다. 결국 어린이들은 손의 사용과 더불어 환경 속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위대한 작업자가 되고 작업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나타낸다.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Montessori는 모든 교육은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어린이의 내면에 이미 결정된 내적 형성법칙에 따라 감춰진 삶의 에너지를 들어내어 자기를 형성해 가는 주체는 어른이나 교사가 아니라 어린이 자신이다. 이러한 어린이 영혼에 담겨진 정신적 현상들은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며 유아초기의 교육은 흡수정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그녀의 영·유아교육론은 루소, 페스타로찌, 프뢰벨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아의 생득적 잠재능력과 자유와 사랑의 환경적 조건에서 그 계발능력을 강조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영·유아교육 철학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독창성(originality), 창조성(creativity), 적절성(appropriateness)이라고 밝히고 있다(전경화, 1993). 몬테소리교육의 목적도 어린이의 내적 잠재력을 계발하되 성인 중심으로 서두르거나 사회적 경향에 따라 조급해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적인 정신 발달을 이루며 어린이 개개인의 개별적인 능력과 발달의 정도에 따라 교구를 선택하고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원리이다. 지식, 기능위주의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영·유아기부터 과잉 교육열을 나타내는 현대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어린이로부터의 교육’과 ‘자동교육’에 대한 측면은 더욱이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어린이는 분명히 어느 시기에 이르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 외침에 대하여 어른들은 어린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인 자세로 환경을 제공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된다. 특히 맞벌이 부모의 경우 두드러진 것은 부모로서 보살피 주지 못하는 죄책감에 무엇이나 다 들어주고자 하는 분별없는 사랑으로 어린 자녀들을 무능하게 하거나(옹석받이) 마음대로 하도록 두는 방임형의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녀의 수가 적다 보니,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삼지어는 부모의 전화기로 작동되어지는 ‘로봇어린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어린이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유아교육 학자들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실정에서 특히 ‘어린이로부터의 교육’이라는 몬테소리의 교육원리는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셋째,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차분히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해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심은혜, 2001)에서, 어린이들의 민감기와 흡수정신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몬테소리교육의 준비된 환경, 자동교육의 원리는 부모와 떨어져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빈 공간에 안정감, 성취감, 자립심을 영·유아들에게 길러줄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본다.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 영역은 어릴수록 더욱 흥미점도 높을 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엄마를 생각하며 위안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몬테소리 교육사상의 중심개념이 되는 정상화 개념을 작업에 대한 몰입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업을 다시 세계에 대한 질서부여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충동성, 의존성, 무질서, 방황 등의 심리적 일탈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작업을 통한 몰입은 심리치료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에게 감각영역의 활동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섯째, 몬테소리의 우주적 조화로서의 전체성을 보면, 그녀가 미리 예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사회가 겪는 지구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그녀는 자신의 우주적 조화에서 미리 감지하듯 중요하게 설파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현대 영·유아기에 급작스레 나타나기 시작한 피부 아토피 현상은 자연을 거스른 산업사회의 병폐적인 한 모습으로 보게 된다. 모든 유아교육학자들과 함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성장해야 함을 몬테소리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몬테소리는 프랑스의 이타르와 세강의 전통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지체부자유나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하여 감각교육을 강조하였다. 몬테소리는 이들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의학적 조치만 생각하던 당시 정신지체아에 대한 관점을 교육적 조치로 관심을 돌리면서 오늘날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주었다. 또한 세간의 생리학적 교육방법이 결합 있는 어린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린이의 계발을 돕는 목적으로도 유용한 체계라고 보며 이를 영·유아교육에 도입하여 몬테소리 교육방법의 기저를 이루게 된다.

더러 몬테소리의 교육은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유아교육자들이 거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지각이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현대 유아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결국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던 자료였으나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유용하다고 밝혀지면서 이러한 원리나 자료가 일반 아동들을 위한 교육에 사용되었다. 현재 일반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교육방법은 그 근원을 특수교육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원리가 일반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는 모든 교사들에게 유용한 것이며 특히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중요하다(송준만, 유효순, 1993: 24).

2. 한계성

지금까지 몬테소리 영·유아교육 사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고찰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몬테소리 영·유아교육실현에 대한 몇 가지의 한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몬테소리는 외삼촌 스토파니의 영향도 받았지만, 프랑스의 이타르와 세간의 생리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객관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취하게 되며, 이 사상은 그녀의 “과학적 교육학”의 근본 틀이 된다. 과거 우리는 과학중심교육과 실험주의, 실증주의적인 접근에 의한 교육을 받아오면서 각 인간으로서의 개별적 능력을 무시당하고, 오로지 흑백 논리에 의한 잘잘못을 거론하며 숫자에 불과한 성적 순위에 의하여 인간을 가늠하는 교육을 받았다. 결국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과학의 특성으로 볼 때, 몬테소리 교육사상에서 지정된 교구의 사용과 정답을 향한 반복적 연습, ‘정상화’되지 못한 ‘일탈’ 등은 이러한 맥락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준비된 환경에서의 개별적인 자기교수법 원리는 프뢰벨의 교육원리처럼 사회적 상호작용 내지는 협동을 위한 실제적 경험의 상황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문제로 사회성 결여가 우려되는 영·유아들에게 이것은 더욱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몬테소리 교육은 반드시 몬테소리교사로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사교육은 어떤 측면에서든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비가 지나친 부담이 되어 결국 교구만 제시해 놓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사교육뿐 아니라 몬테소리교구 역시 가격 면에서 부담이 크며,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도 일반교구들과는 달리 매우 힘든 부분이다. 더러 보완되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망가진 채로 방치한다든지 교구의 교육적인 목적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도 문제이다.

넷째, 몬테소리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교구에서부터 교사교육까지의 비용이 너무 과하여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볼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 몬테소리 교육사상을 배경으로 한 유아교육원리의 유익성과 한계성을 고찰해 보았다.

사실 언제인가부터 ‘아동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역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스스로의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를 본다. 산업사회의 발달이 불러 온 핵가족화,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말이 빈번하게 회자되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의 문제, 사교육에 대한 과열의 문제, 지나친 기능 위주의 조기교육 열풍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문제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 가족해체 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들(박인전, 2006: 282) 앞에서 가장 심하게 상처받는 것은 결국 언어 표현이 미숙하여 온 몸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이라고 본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몬테소리를 생각한다. 그녀의 교육사상이 다소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대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여의사에서 교육실천가로서의 눈을 뜨던 그녀의 회귀는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버려진 아이들과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길가를 돌아다니며 어른들의 성가신 존재로 돌려지던 어린이들에 대하여 미래의 역군으로서의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 사회 어린이들에 대하여 몬테소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가.

무엇보다 어린이는 모든 생물처럼 그 자신의 자연 법칙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욕구에 대한

존중은 성인 자신의 욕구를 재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성인들의 욕구에 보다 관용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로부터의 교육’ 원리에서 어린이 존중은 인간 생활 전체에 있어 존경과 이해의 증진을 가져오게 된다. 어린이들이 보는 성인의 눈이 모순이 없을 때 성인은 아동, 자연, 다른 성인 및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결코 비인간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영·유아교육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치료법이라고 본다.

물론 몬테소리 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우선 교육 이론의 실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전문적인 교수 기술, 교구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기술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대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사나 또는 교육 연구가들에게 몬테소리 교사 교육이나 연구의 길을 열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준비된 환경에서의 문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동 스스로가 무한한 가능성임을 강조한 몬테소리는 어떤 학습 자료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또 다른 학습 자료는 이러한 구체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준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몬테소리 교육은 그녀가 제안한 일부 학습 자료 범위 내에서 유아가 스스로 그 학습 자료를 선택하고 놀이하는 환경을 구성해 놓음으로서 오히려 아동의 학습 가능성의 폭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 있는 학습 자료의 구성 및 조작 기회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몬테소리 교육을 위해서는 그녀의 교육원리를 응용하여 집이나 또는 기존의 유아 교육 시설로도 충분한 기본 시설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게 교구를 개조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 효과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몬테소리 영·유아교육사상의 중심개념이 되는 ‘어린이로부터의 교육’과 ‘정상화’ 개념을 어린이의 작업에 대한 몰입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질서 부여, 우주 조화로서의 전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현대 사회의 반 생태적 어린이 교육에 대하여 몬테소리 교육이 주는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질서화로서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 몬테소리의 이론은 단순히 어린이 교육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 교육사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유아교육환경이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의 빛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1983). 몬테소리교육의 본질.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균(1998). 몬테소리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이(2002).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 유아교육원리와 교육방법에 대한 고찰 및 현대적 의의. **한국교육사학**, 24(2), 133-158.
- 김영옥(1981).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두하(1976). 몬테소리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전(2006). **아동복지론**. 서울: 교문사.
- 박정희(1988). 몬테소리 유아교육사상 연구-교육이념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석남(2006). **몬테소리 생명교육**. 서울: 동문사.
- 신화식(1989). 몬테소리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모형의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은혜(2001). 몬테소리 일상생활훈련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주(2003). 몬테소리의 '정상화' 개념의 이해; '질서'를 중심으로. **교육철학회지**, 24, 95-108.
- 이상금, 지경애(1996). **몬테소리교육**. 서울: 교문사.
- 장상호(2005). **학문과 교육(중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경화(1993). 몬테소리 교육사상과 교육방법. **부천전문대학논문집**, 14.
- 전영순(1980). **몬테소리교구 실천방법**. 서울: 보문사.
- 조방계(1989). 몬테소리 프로그램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정의적 행동특성의 비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자(1975). **어린이정신**. 서울: 창지사.
- 조성자(2006). **마리아 몬테소리 자서전**. 서울: 도서출판 신정.
- 홍순정(1992). **아동교육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 황옥자(1984).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동의 정상화 과정에 관한 고찰. **아동학회지**, 5, 96.
- 황윤경(2006). 몬테소리 교육사상을 통하여 보는 아동기 생태적 발달 특성과 교육적 의미 고찰. **아동교육학회지**, 15, 83-96.
- Michael & D'Neil Duffty(2002). *Children of the Universe*. Parent Child. Hollidaysburg.
- Socchera, A.(1990). *Maria Montessori: Quesi un ritratto inedito*, Ed. La nuova italia, Firenze.
- Pignatari, M.(1967). *Maria Montessori cittadina del mendo*, Ed. Comitato Italiano Educazione Prescolastica, Roma.